

## 프랑스 파리의 '플랜테이션 파리' 옥상 농업 프로젝트

옥승철  
옥스퍼드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 옥상에 들어선 대규모 텃밭

프랑스 파리 철도부지 Chapelle International 지구의 초대형 물류 센터 건물 옥상에 7,000m<sup>2</sup> 규모의 옥상 텃밭이 조성되었다. '플랜테이션 파리(Plantation Paris)'라 불리는 프로젝트에 의한 것으로, 프로젝트는 도시 거주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도시의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연과의 연결을 재창조하겠다는 비전 아래 시작되었다. 전체 텃밭 규모 중 1,200m<sup>2</sup>는 수경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으며, 유기농 씨앗으로 심은 양배추·라즈베리·고추·토마토·순무 등 연간 50톤, 70종 이상의 채소와 과일, 식용 꽃들이 재배되고 있다.

특별한 점으로 건물에 조성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로 온실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써 난방을 위한 전기세와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 옥상 농업의 커뮤니티 기능과 상업적 활용

플랜테이션 파리 옥상농업 프로젝트는 파리 시정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 협력 프로젝트이다. 프랑스의 스타트업인 컬티베이트(Cultivate)가 주도하였으며 프랑스의 식료품 마트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프랑프리(Franprix)와도 협력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공적인 활용보다는 상업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요리 수업과 요가 수업

옥상 공간은 채소밭, 온실, 이벤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벤트 공간은 몽마르트르가 보이는 1000m<sup>2</sup>의 유리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파리의 다른 옥상텃밭과는 다른 한 가지는 다양한 상업적 이벤트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벤트 공간에서는 옥상에서 직접 재배한 식물을 활용한 요리 수업, 옥상 텃밭과 함께하는 요가 수업 등이 상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직원들을 위한 요리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Plantation Paris 옥상 전경

출처: 플랜테이션 파리 홈페이지, <https://www.plantation.paris/>

옥상 공간 활용 이벤트



커뮤니티 공간



요리 워크숍



요리 수업

출처: 플랜테이션 파리 홈페이지. <https://www.plantation.paris/>



요가 수업

요리 수업에서는 유명 셰프가 직접 옥상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들을 활용하여 발효 요리 등 건강 요리 관련 수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요가 수업 또한 유명 요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다. 요리 수업 참가비는 1회 75유로(한화 약 10만 원)이고, 요가 수업은 1회 30유로(한화 약 7만 원 정도)를 내면 참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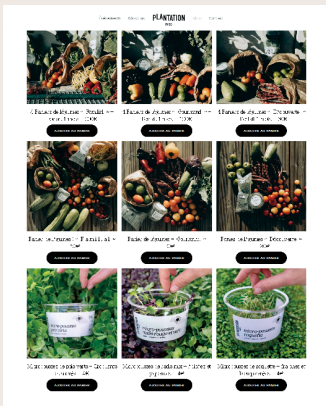
재배 식물의 유통 및 온라인 판매

매년 50톤의 채소와 식물들은 파리 주변의 식품 체인점인 프랑프리(Franprix)에 직접 납품되고 있으며 주변 레스토랑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판매를 위한 배달은 파리의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여 도시 내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배달을 강조하고 있다.

수확물은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직접 친환경 포장하고 있다. 상품은 예를 들어 바구니에 양배추 1개, 라즈베리 100g, 상추 1상자, 고추 400g, 토마토 800g, 순무 500g 등을 담아 판매한다.

참고문헌

- 1 컬티베이트 홈페이지. <https://cultivate.fr/plantation-paris/>
- 2 플랜테이션 파리 홈페이지. <https://www.plantation.paris/>
- 3 플랜테이션 파리 인스타그램 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plantationparis/>



생산물 온라인 판매

출처: 플랜테이션 파리 홈페이지. <https://www.plantation.paris/>